

農業에 있어서의 生産力の 問題

崔 朱 喆

(1)

오늘날 農業, 農村, 農民의 諸問題를 論하는 사람치고 農業生産力이라는 말을 使用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만큼 이 農業生産力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膾炙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데도 不拘하고 農業生産力에 대한 正確한 概念을 充分히 理解하고 이 말을 使用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면 農業生産力이란 大體 어떠한 內容을 가지는 것이기에 그 概念의 誤謬를 받아 가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이처럼 합부로 使用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答을 求하기 위하여 農業生産力의 一般的 概念을 理論적으로 考察하려는 것이 本稿의 目的이다.

農業生産力を 說明하기에 앞서서 먼저 生産諸力(Produktivkraft) 즉 簡單하게 生産力이라고 불리우는 것의 意義부터 생각해 보기로 하자. 生産力이라고 하는 것은 勞動過程에 있어서의 所謂 生産의 諸要素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다. 이 경우 假令 「디-일」(K. Diehl)은 生産要素로서 人間의 勞動力과 自然諸力(土地의 豐饒性)을 들고 있고, 「슈페-타」(J. Schumpeter)는 勞動——勞動給付——과 自然——土地利益——을 들고 있다. 이밖에 三要素說(自然, 勞動, 資本)——J. B. Say, J. Conrad 等——과 自然, 勞動, 資本, 企業의 四要素說——Fleischel, Ed. Biermann, J. Wolf 等——과 自然만의 一要素說(A. R. J. Turgot) 및 勞動만의 一要素說(C. Rodbertus)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諸要素를 다만 併列적으로 列舉하는 것으로는 生産力の 本質을 바르게 把握하지는 못한다. 이 生産要素는 勞動過程과의 一定한 諸關聯 위에서 把握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며 人間의 勞動에 의하여 統一됨으로써 비로소 그것은 現實적으로 生産諸力이 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말할 것도 없이 勞動은 人間과 自然과의 사이의 一過程, 즉 人間이 人間과 自然과의 사이의 素材代謝를 그 自身の 行爲에 의하여 媒介하고 規制하고 統制하는 바의 一過程이다. 이러한 勞動過程의 諸契機이고 構成要素인 (1)人間的 合目的的 活動 또는 生産의 作用하는 勞動力, (2)勞動對象, (3)勞動手段이 基本的으로 生産力이 되는 것이다. 自然力 즉 例를 들면 土地(豐饒性)나 落流等은 或은 勞動의 對象이 되고 或은 勞動의 手段이 되는 것은 確實하다. 그

러나 이것만으로는 生産力이 될 수는 없다. 人間勞動에 의하여 이것이 統一되고 規制되는데서 비로소 土地나 落流는 生産力으로 나타나게 된다. 勞動에 의하여 運轉되지 않는 勞動手段이나 勞動對象 그리고 人跡未踏의 處女地는 勿論 生産力은 아니다. 이것이 人間の 合目的的 活動 즉 勞動에 의하여 生産的으로 利用되는 것에 의해서만 그것은 生産力이 되는 것이니 여기에 生産諸力의 統合主體로서의 人間勞動의 決定的 優位性을 우리는 發見하는 것이다.

勿論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나는 勞動手段이나 自然力이 生産要素로서 가지는 意義를 輕視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事實에 있어서 勞動手段은 人間の 勞動力の 發展의 測度器가 될뿐만 아니라 그안에서 勞動이 行해지는 社會의 諸關係의 指示機도 되는 것이며 特히 資本主義의 大工業의 段階에 있어서의 勞動手段 즉 機械는 다른 모든 諸力을 壓倒할 만큼 그 威力은 큰 바가 있다. 또 自然은 勞動과 同一한 程度에 있어서 素材의 富, 따라서 使用價値의 源泉이기도 하다. 使用價値를 가지고 있는 모든 商品은 自然素材와 勞動이라고 하는 둘의 要素가 結合되어 이루어진 것이요 까닭에 勞動만이 그것에 의하여 生産되는 使用價値의(素材의 富)의 唯一의 源泉이라고 할 수는 없다. 事實「페티어」(W. Petty)가 말한바 勞動은 素材의 富의 아버지이고 土地는 그 어머니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勞動은 自然과 對等한 資格에 있어서 素材의 富의 源泉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不拘하고 우리는 왜 勞動過程에 있어서 또 生産過程에 있어서 勞動의 第一義의 重要性을 富 創造에 있어서의 勞動의 能動的 積極의 役割을 強調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일까? 그것은 무엇 보다도 먼저 人間の 生存維持를 위하여 自然素材를 獲得하는데 있어서는 人間の 合目的的인 活動, 勞動을 媒介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에 그 理由가 있다. 이와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考察對象이 自然史가 아니라 人間の 社會의 歷史라고 하는 事實에 있어서 그러하다. 말할 것도 없이 社會史는 自然史로부터 다음의 一點에 있어서 本質的으로 區別된다. 즉 自然에 있어서는 相互에 作用하는 것은 意識이 없는 純盲目的 能因이며 그러한 能因의 交互作用안에 一般法則이 움직인다.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는 그 무엇이든지 意識된 意識의 目的으로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에 反하여 社會의 歷史에 있어서는 行動하는 것에는 모두 意識이 賦與되고 反省 또는 情熱을 가지고 行動하고 一定한 目的으로 向해서 人間이 活動한다. 모든 人間の 歷史의 最初의 前提는 살아있는 人間の 個人的 生存이며 同時に 現實的인 個人 그들의 行動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創造된 그들의 物質的 生活의 諸條件이다. 世界の 모든 人間은 暫時라도 勞動을 停止하고는 生存을 繼續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人間の 社會의 生活의 根柢에 人間の 勞動이 基礎지워진다고 하는 것은 人類社會의 自然史의 必然이라고 보아 妥當할 것이다. 勞動過程은 直接的으로는 自然과 人間과의 사이의 素材代謝의 過程이요 自然素材와 人間과의 結合에 의한 使用價値의 形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人間이 自己의

生活를 維持하기 위해서 必要한 使用價値를 一定한 目的에 따라서 自然力을 利用하여 만들어내는 것을 뜻함에 不外하므로 自然은 人間生活에 있어서 前提되는 一般的 基礎가 되고 勞動過程에 있어서 人間勞動의 能動的인 것에 對應하는 受動的인 地位에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生産諸力과 그 結合過程에 있어서의 能動的인 統一主體로서의 人間의 受動的인 意義를 以上과 같이 解釋한다고 할진대 勞動生産力이란 무엇이며 이것과 生産諸力과의 關係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問題의 焦點은 스스로 明白해 지리라고 믿어진다. 素材의 富의 形成過程으로서의 勞動過程은 그 自身 하나의 生産力이 되는 勞動이 爾餘의 모든 諸力을 合目的的으로 結合統一하는 過程을 말하는 것이며 生産諸力이라고 하고 勞動生産力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結局은 이 同一한 過程을 相異한 角度와 相異한 斷面에 있어서 捕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限 두概念은 勞動의 媒介에 의하여 關聯지워지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假令 生産力을 높인다고 할 경우 그것은 먼저 個個의 生産力 또는 生産條件의 進步改善이 前提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性能이 높은 機械나 道具를 使用하고 良質의 原料, 豊沃한 土地를 利用하고 生産手段의 作用規模의 擴大, 勞動方法의 改善等을 多少間에 相互關聯의 行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諸力이 現實的으로 生産力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人間의 勞動이 이것을 統合媒介하지 않으면 안되는 까닭에 諸力의 進步는 結局에 있어서 勞動生産力增進을 위해서인 條件이 된다. 따라서 勞動의 生産力은 生産力構造의 主軸이 되는 것이요, 이 主軸을 缺하고는 生産力은 그 自體가 存在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意味에 있어서 勞動의 生産力은 이것을 單純하게 自然 또는 土地의 生産力이나 技術의 生産力等과 併列的인 것으로 理解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勞動生産力은 當然한 일이지는 하나 使用價値 또는 勞動過程에 即하는 概念이다. 生産力은 말할 것도 없이 常時 有用한 具體的인 勞動의 生産力이다. 다만 그것은 주어진 期間에 있어서의 合目的的인 生産的 活動의 作用의 程度를 規定짓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有用勞動은 그 生産力의 增大 또는 低下와 正比例하여 보다 豊富한 生産物의 源泉도 될 수 있고 보다 貧弱한 그것도 될 수 있다. 그러나 生産力의 變化는 價値에 表現되고 있는 勞動 그 自身에는 조금도 抵觸하지 않는다. 生産力은 勞動의 具體的인 有用의 形態에 屬하는 것이기 때문에 勞動이 이 具體的인 有用의 形態로부터 抽象化된다고 한다면 이경우 生産力은 當然히 勞動에는 抵觸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不拘하고 이러한 性格을 가지고 있는 勞動生産力이 經濟學의 考察對象이 되는 것은 그것이 資本生産力의 物質的 基礎가 되고 素材의 土臺가 된다고 하는 곳에 그 理由가 있다. 그것은 마치 使用價値가 交換價値의 素材의 基礎가 된다고 할때 비로소 그 使用價値는 經濟學의 研究의 範圍內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論理이다.

우리가 衆知하는 事實과 같이 勞動의 生産力은 勞動者의 熟練의 平均度, 科學 및 그 技術的 應用的 發展段階, 生産過程의 社會的 組立, 生産手段의 크기와 그 作用力 그리고 自然的 諸條件에 의하여 制約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增進시키기 위해서는 勞動手段이나 勞動方法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勞動의 生産力을 規定하는 要因은 勞動의 生産諸條件 즉 生産樣式 또는 勞動過程 그 自體에 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普通 勞動의 生産力의 増大라고 할 경우 그것은 勞動의 諸條件에 의하여 一商品의 生産에 社會的으로 必要로 하는 勞動時間이 短縮되고 이리하여 少量의 勞動이 보다 多量의 使用價値를 生産하는 힘을 獲得하는 바의 勞動過程에 있어서의 變化를 意味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勞動過程에 있어서 우리가 特定한 生産物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客觀的인 生産條件 및 그 因子인 生産手段과 主觀的 生産條件 因子인 勞動力이 미리 調達되어져 있는 것을 必要로 한다. 이러한 諸因子는 말할 것도 없이 先行生産의 勞動의 結果에 不外한 加算에 그 調達의 方法은 經濟體制의 如何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이며 가령 資本主義下에 있어서는 流通部門을 通하여 商品으로서 調達된다. 이 경우 生産의 諸因子는 各已 一定한 使用價値와 特定的 性質을 지니는 一定物件이요, 生産에 앞서서 이것은 미리 調達되지 않으면 안되는 關係로 그것이 果然 現實的으로 生産의 因子로서 寄與할 수 있게 될 것인지의 與否는 또 勞動過程에 있어서 어떠한 地位를 占하게 될 것인가의 與否는 오로지 勞動過程의 性質如何에 의하여 決定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財貨 그 自體가 가지는 使用價値와 그것이 勞動過程에 있어서 機能하는 使用價値와는 이것을 區分하여 다루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가령 石炭은 財貨로서 一定한 使用價値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그러나 이 石炭이 果然 生産手段으로서 機能할 것인지의 與否는 勞動過程의 性格如何에 依存한다. 뿐만 아니라 勞動力이 果然 生産의 勞動으로서 作用하게 될 것인지의 與否도 亦是 마찬가지이다.

이와같이 流通部門을 通하여 調達되는 段階에 있어서의 生産手段과 勞動力과는 그것이 客觀的 또는 主觀的인 差異는 있을 지라도 生産的 因子인 點에 있어서는 같은 資格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生産의 段階인 勞動過程의 內部에 있어서는 이 兩因子는 앞에서도 說明한 바와 같이 各各 그 性格을 달리하여 하나는 受動的 因子 다른 하나는 能動的 因子로 바뀌게 된다. 특히 後者は 單純한 因子로서의 勞動力이 아니라 『勞作을 하는 勞動能力』 『合目的으로 發現하는 勞動能力』이 되어 人間의 實踐的活動을 通하여 現實的 轉化過程을 거침으로써 그것은 勞動의 手段과 勞動의 對象이 되게 되는 것이다. 生産手段은 그 本來의 使用價値의 特質에 의해서가 아니라 人間의 勞動의 特定的 方式을 媒介로 하여 勞動過程의 性質에 制約됨으로써 비로소 그것은 勞動의 手段이 되고 對象이 된다는 意味이다. 商品에 있어서 使用價値

는 그것이 特定の 性質을 지니는 一定한 물건이었던 것에 反하여 이 경우의 使用價值는 原料 또는 勞動手段으로서 機能하는 물건 즉 使用價值를 使用價值에 의하여 使用價值 안에서 活動시키는 산 勞動(活動하는 勞動能力)을 통해서 變化된 形象의 使用價值, 生産物에 轉化된 使用價值로서 나타나게 된다. 그리하여 生産手段(客觀的 勞動條件)은 合目的的으로 活動하는 勞動能力 즉 勞動 그 自身(主觀的 條件)의 手段으로서 機能하게 되는 것이니 여기에 우리는 勞動過程의 本來的 姿態에 있어서 生産手段을 使用하는 主體는 勞動者라는 結論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지금까지 나는 人間生活의 永遠的 自然條件으로서의 勞動過程의 見地에서 生産諸力 및 勞動의 生産力을 規定하였다. 그런데 勞動過程은 特定の 社會的 形態로부터 獨立된 따라서 모든 社會的 形態에 共通된 것으로서의 勞動過程이요 그리하여 그것은 資本主義的 生産의 抽象的 側面 그 一般의인 素材의 基礎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生産諸力이나 勞動生産力은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는 다만 抽象的으로만 觀念할 수 있는 概念에 不過하며 여기에 있어서 그것은 具體的으로는 必然的으로 資本의 生産力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生産力의 問題를 보다 具體的으로 追求하기 위하여 우리는 勞動의 社會的 및 自然的 生産力은 어떻게 資本의 生産力에 形態轉化하게 되는가 또는 資本生産力은 어떻게 自己를 表現하고 展開하기에 이르는가 하는 諸點을 考察할 必要가 있다.

勞動의 生産力이 資本의 生産力으로서 現象化하는 것은 簡單히 말해서 勞動이 資本에 包攝되는 것에 緣由한다. 勞動過程이 資本에 從屬한다고 할때 勞動過程은 商品의 使用價值가 交換價值의 素材의 土臺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價值增殖過程에 있어서의 剩餘價值創造의 單純한 手段으로 轉化하게 된다. 이미 說明한 바와 같이 勞動過程에 있어서는 勞動者는 生産의 主體的 能動的 因子로서 生産手段에 대하여 勞動自身の 性質 및 目的에 의해서 規定되는 正常化한 能動關係에 들어서게 된다. 그는 生産手段을 勞動諸條件을 自己의 勞動의 單純한 手段이나 材料로서 占有하고 處理한다. 勞動의 對象의 諸條件은 勞動과의 正常的인 統一의 過程에 있어서는 그 創造의 作用의 手段 및 對象으로 現象化한다. 따라서 이 경우 勞動者의 主體性, 自主性은 守護되고 固持되게 된다. 그러나 勞動이 資本에 包容된다고 할때는 勞動은 그 主體性을 喪失하고 反對로 勞動條件에 의해서 勞動이 支配를 받게 된다. 勞動이 生産力이 資本이 生産力으로서 現象하는 그 必然性을 우리는 다음

仕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具體的으로 말하면 그러한 社會的 生産力은 相對的 剩餘價值生産의 物質的 基礎로서 使用된다는 것이다. 이 事實은 또 勞動의 社會的 生産力을 本來的으로 不可分 資本의 生産力이 된다고 하는 誤用된 觀念을 發生시키는 原因이 되는 것도 確實하다.

④ 勞動過程에 있어서 勞動은 社會的으로 結合하기 위하여 生産條件(集積된 生産手段)을 利用한다. 이 경우 勞動은 生産條件을 媒介로 하여 비로소 社會的으로 結合되는 것이거나 生産條件은 또 結合된 勞動의 共通의 生産條件으로서 一定한 社會的 性質을 獲得한다. 즉 勞動條件의 社會的 性質, 가령 그것이 資本이라고 한다 할때는 元來 그것이 勞動의 社會的 結合의 手段이고, 勞動收取를 위해서 獨立的 手段으로서 勞動에 對立하는 限에 있어서 主觀的 勞動力에 對立하는 客觀的 勞動條件이라는 視角에 있어서만 後者에 의하여 비로소 附與되는 것인데도 不拘하고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는 勞動條件의 社會的 性質의 便이 오히려 훨씬 勞動과 無關係로 이러한 生産條件에 처음부터 주어진 性質 즉 資本인 것같이 轉倒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價値를 創造하는 힘을 吸收하는 價値, 勞動力을 購買하는 生活手段, 勞動者를 使用하는 生産手段은 資本이다.) 따라서 勞動은 오히려 資本의 一存在樣式으로서 現象化하게 되는 것이다. 勞動手段인 機械의 生産力은 그것이 勞動過程에는 常時 全部 들어가는 것이지만 價値增殖過程에는 部分的으로만 들어가는데 不過한 性能을 人間이 利用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즉 그것은 人間이 代償이나 費用을 支拂함이 없이 그들의 過去의 이미 對象化된 勞動의 生産物을 無償으로 作用시킨다는 것을 意味한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勞動手段이나 勞動對象을 人間勞動이 共同的으로 利用하는 것에 의하여 發生하는 節約이요, 結合된 共同的 勞動에 의해서 利用되지 않고는 그것은 生産力도 資本도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勞動의 社會的 性質의 이로부터 또 結果하여 생기는 社會的 生産力의 對象의 表現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는 順當한 再生産을 前提로 하는 限 機械나 原料 등의 生産手段은 自己에게 活力을 넣어주는 勞動에 대하여 그것으로부터 獨立된 一定한 條件으로서 獨自의 力能으로서 이것과 對立하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力能에 의하여 發生한다고 생각되는 剩餘價值 및 利潤은 勞動의 果實剩餘勞動으로서가 아니라 資本의 果實로서 看做되게 된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앞에서 說明한 生産手段의 共同的 利用으로부터 오는 節約을 通하여 齎來되는 利潤도 必要勞動部分을 短縮하는 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剩餘價值以外的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⑤ 勞動의 社會的 生産力이 個個의 勞動으로부터 獨立하여 形成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그러한 社會的 形成物은 勞動에 屬하지 아니하고 資本에 歸屬한다고 하는 것. 즉 資本生産力으로서 現象化한다고 하는 必然性은 結局에 있어서 資本 밑에 勞動이 從屬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制度가 가져다 준 Present 이다. 特히 資

는 그것이 特定の 性質을 지니는 一定한 물건이었던 것에 反하여 이 경우의 使用價值는 原料 또는 勞動手段으로서 機能하는 물건 즉 使用價值를 使用價值에 의하여 使用價值 안에서 活動시키는 산 勞動(活動하는 勞動能力)을 통해서 變化된 形象의 使用價值, 生産物에 轉化된 使用價值로서 나타나게 된다. 그리하여 生産手段(客觀的 勞動條件)은 合目的的으로 活動하는 勞動能力 즉 勞動 그 自身(主觀的 條件)의 手段으로서 機能하게 되는 것이니 여기에 우리는 勞動過程의 本來的 姿態에 있어서 生産手段을 使用하는 主體는 勞動者라는 結論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지금까지 나는 人間生活의 永遠的 自然條件으로서의 勞動過程의 見地에서 生産諸力 및 勞動의 生産力을 規定하였다. 그런데 勞動過程은 特定の 社會的 形態로부터 獨立된 따라서 모든 社會的 形態에 共通된 것으로서의 勞動過程이요 그리하여 그것은 資本主義的 生産의 抽象的 側面 그 一般的인 素材의 基礎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生産諸力이나 勞動生産力은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는 다만 抽象的으로만 觀念할 수 있는 概念에 不過하며 여기에 있어서 그것은 具體的으로는 必然的으로 資本의 生産力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生産力의 問題를 보다 具體的으로 追求하기 위하여 우리는 勞動의 社會的 및 自然的 生産力은 어떻게 資本의 生産力에 形態轉化하게 되는가 또는 資本生産力은 어떻게 自己를 表現하고 展開하기에 이르는가 하는 諸點을 考察할 必要가 있다.

勞動의 生産力이 資本의 生産力으로서 現象化하는 것은 簡單히 말해서 勞動이 資本에 包攝되는 것에 緣由한다. 勞動過程이 資本에 從屬한다고 할때 勞動過程은 商品의 使用價值가 交換價値의 素材의 土臺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價値增殖過程에 있어서의 剩餘價値創造의 單純한 手段으로 轉化하게 된다. 이미 說明한 바와 같이 勞動過程에 있어서는 勞動者는 生産의 主體的 能動的 因子로서 生産手段에 대하여 勞動自身の 性質 및 目的에 의해서 規定되는 正常化한 能動關係에 들어서게 된다. 그는 生産手段을 勞動諸條件을 自己의 勞動의 單純한 手段이나 材料로서 占有하고 處理한다. 勞動의 對象의 諸條件은 勞動과의 正常的인 統一의 過程에 있어서는 그 創造的 作用의 手段 및 對象으로 現象化한다. 따라서 이 경우 勞動者의 主體性, 自主性은 守護되고 固持되게 된다. 그러나 勞動이 資本에 包容된다고 할때는 勞動은 그 主體性을 喪失하고 反對로 勞動條件에 의해서 勞動이 支配를 받게 된다. 勞動의 生産力이 資本의 生産力으로서 現象하는 그 必然性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될 것이다.

① 勞動의 社會的 生産力이 發現하고 展開된다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勞動過程 즉 生産의 領域에 屬하는 問題이다. 이 生産力은 本來的으로 自然力이건

또 勞動의 結果인 生産力이건 間に 그것은 勞動手段 및 勞動對象의 質, 量의 如何에 依存하는 것이며 이것은 常時 對象의, 受動的 條件이 될 따름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生産力의 能動的 主體의 條件으로서의 勞動의 方式如何가 決定的인 意義를 가지게 된다. 勿論 勞動이 社會의 共同的 勞動으로 發展함에 應하여 勞動의 對象의 諸條件도 또한 簡單한 道具로 부터 複雜한 그 自身 客觀的인 自動裝置로서의 機械體系로 或은 單純한 自然으로 부터 原料素材라고 하는 것등으로 發達하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自然力 또는 生産力이 對象의 條件으로서 社會의 巨대한 生産力이 될 수 있는 것은 人間의 勞動活動이 어떻게 이것을 有効히 使用하고 結合 勞動으로서 어떻게 그 效果를 發揮하는가의 如何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人間이 勞動의 形態에 있어서 生産手段을 利用하는 것을 規定하는 것에 不外하다. 機械等은 勞動의 手段이 되고 勞動의 對象은 될지언정 그 自體 生産力은 될수는 없다. 生産力은 언제든지 勞動의 社會의 生産力인 것이다. 이 事實은 人間의 社會의 生存을 위해서인 一般의 基礎로서의 勞動過程 또는 勞動의 生産力은 어떻게 그것이 複雜高度의 社會의 形態를 取한다 할지라도 結局에 있어서는 人間의 勞動에 基礎지워지고 그것에 依存한다고 하는 自然史的 必然性을 證示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自然史的 過程은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는 轉倒되어 나타난다는 것에 우리의 問題로 하는 바가 있다. 즉 本來 勞動의 社會의 生産力이던 것이 여기에 있어서는 資本의 生産力으로서 나타나고 人間의 勞動의 手段으로서 生産手段이 利用되던 것이 여기에 있어서는 反對로 生産手段이 人間을 支配하고 使用하게 되어 所謂 資本의 物神性, 神秘性이 이러한 것이다. 勞動者는 自己의 生産物을 自己自身을 支配하고 收取하는 手段으로서 生産하는 것이며 이 경우 生産手段이나 生活手段은 資本으로 轉化한다. 이렇게 勞動의 社會의 生産力이 勞動에 所屬되지 아니하고 資本의 生産力으로서 占有되는 곳에 前者의 成果는 剩餘價值가 되고 利潤 나아가서 剩餘利潤이 되는 수수께끼가 숨어 있다.

② 勞動의 生産力이 이와같이 發現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勞動過程 즉 生産過程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나와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는 이것에 앞서서 勞動力이 商品으로서 그 元來의 所有者인 勞動者로부터 販賣되어 資本의 손에 歸屬된다고 하는 것을 前提로 한다. 이것을 資本의 立場에서 問題視한다고 하면 P에 先行하여 $G-W(A)$ 의 取引이 必要하게 된다. 이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資本이 生産手段을 獲得 占有하는 것을 또한 必要로 하는 것이지만은 當面の 問題는 勞動力의 調達 占有가 무엇보다도 더 重要하다. 이 取引은 資本의 流通에 있어서의 形態轉化의 一局面이며 勞動者의 立場에서는 그들이 所有하고 있는 勞動力이라는 하나의 唯一한 商品이 資本에 販賣되는 過程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여기에 問題를 限定하는 限 資本家は 商品(勞動力)의 購買者로서 그 販賣者인 勞動者에 對立하는 것이라고 보아 妥當할 것이다.

本主義의 生産方法이 高度로 發展하면 勞動의 社會의 形態는 個個의 勞動으로 부터는 全혀 獨立하여 形成되고 個別勞動과는 無關係의 것으로 하여 資本의 形態에 轉置되게 된다. 이 경우 勞動手段은 一個의 機械的 怪物이 되고 資本關係의 物神化는 最高로 完成되어 個個의 勞動力은 資本機構를 떠나서 오직 無用之物로 化하기에 이른다. 이와같은 勞動의 條件이 勞動을 支配하고 過去의 勞動이 或은 勞動의 生産物이 산 勞動을 支配하는 轉倒된 奇現象을 우리는 大工業의 段階에 있어서 充分히 目睹하는 것이다. 이 制度下에 있어서는 本來 人間의 努力의 結晶인 協業, 分業, 科學, 機械, 發明, 發見, 自然力 등은 모두 獨自의인 資本의 힘으로서 勞動에 對立하며 資本은 이 힘을 生産에 利用하여 勞動者를 使役하고 剩餘勞動을 獲得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 妥當할듯 하다.

① 資本主義下에 있어서의 生産力의 發展은 다만 勞動의 手段이나 對象의 發達에 의해서만 아니라 그 主觀的 要因으로서의 勞動 그 自體의 社會的 結合의 高度化에 의해서도 齎來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實은 前者의 對象의 諸條件의 發達은 後者의 勞動의 社會的 結合의 進步에 適應하는 것에 不外하므로 資本主義下의 生産力은 基本的으로는 勞動의 社會的 結合의 如何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個個의 勞動者에 對立하고 그들에 無關係의인 힘을 가지고 그들을 支配하는 것은 다만 對象의 諸條件뿐만이 아니라 또 主觀的 條件으로서의 社會的 勞動 그 自體이기도 하다는 것이 된다. 이리하여 資本의 物神化는 完成되고 勞動의 社會的 生産力은 資本의 生産力으로서 必然的으로 現象化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資本主義의 歷史的 命題는 人間의 生産의 活動, 勞動의 社會的 生産力을 顧慮하지 아니하고 一路 前進한다는 것에 있다. 즉 資本主義는 이러한 命題를 오직 資本의 生産力의 自己展開를 通하여 遂行한다는 것이며 이 意味에 있어서 資本主義社會의 發達은 資本生産力의 展開에 그 基礎를 두고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資本生産力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本來 勞動의 社會的 生産力이 物神化의으로 轉倒되어 歪曲된 것으로 나타나는 現象形態이기 때문에 그 發展은 當然히 勞動의 過剩人口化와 貧困의 累積을 必然的으로 隨伴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우리는 資本生産力이 가지는 그 內在的인 矛盾의 展開를 엿볼 수 있는 契機를 發見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지금까지 展開한 勞動生産力 및 資本生産力의 一般的 理論에 立脚하여 農業의 生産力을 考察하려는 것이 나의 다음의 課題이다. 그런데 農業生産力도 또한 自然史的 過程으로서의 農業勞動過程의 特質究明의 觀點에서 農業勞動의 社會的 生産力의 概念을 分明히 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될상 싶다.

元來 農業을 하나의 特定の 産業으로서 爾餘의 産業 가령 工業으로부터 區分한다고 할때 그것은 一般的으로 農業과 工業과의 사이의 社會的 分業을 前提로 하는 것이요 나아가서 農業의 內部에서 工業 등이 分化獨立하는 歷史的 過程을 前提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社會的 分業은 具體的으로는 資本主義의 成立에 의하여 비로소 可能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여기서 우리가 農業勞動過程을 먼저 考察한다고 하는 그 勞動過程은 그것이 農業資本主義에 歷史的으로 先行한다는 그런 意味에서가 아니라 農業資本主義로부터 그 하나의 斷面을 理論的으로 抽象化하여 農業勞動過程을 把握한다는 意味의 그것이다. 勿論 우리의 當面의 考察의 目的은 우리나라와 같은 資本主義的 農業으로 發展되지 아니한 後進的인 農業에 있어서의 生産力을 論하기에 앞서서 먼저 理論的 考察의 領域에 있어서도 典型的으로 그것이 完成된 所謂 英國型 農業資本主義를 對象으로 하여 그 抽象의 一面을 明白히 해보려는 것에 있다.

그런데 一般的으로 여기에 있어서의 農業勞動은 社會的 勞動으로서의 그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農業은 무엇에 의하여 工業과 區別되며 或은 勞動過程을 가지고 말할 때는 農業勞動은 무엇에 의하여 工業勞動으로부터 區分되는 것인가 하는 點에 問題가 있다. 萬若에 이點이 明白히 된다고 한다면 農業勞動의 生産力의 概念은 스스로 確然해지리라고 믿어진다. 이것을 다른 말로서 表現하면 農業勞動過程에 있어서 人間活動에 의하여 合目的的으로 結合되는 對象의 勞動條件(受動的 要因)과 生産的으로 作用하는 勞動力 즉 勞動은 工業의 그것에 比하여 어떠한 特殊性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또 農業勞動의 方式에 있어서의 特徵은 무엇인가 하는 問題이다. 이러한 設問에 대해서는 從來의 農業經濟學者들이 部分的으로 解答을 던져주고 있으므로 그 詳細한 內容을 說明하는 것은 여기서 省略할 것이지만 나는 그들의 理論的 成果를 우리의 當面의 目的을 위하여 어느程度 利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인가 하는 것을 求하기 위해서 그 理論의 몇가지를 吟味해 보고자 한다.

「골츠」(Theodor Freiherrn von Goltz)에 의하면 「廣義의 農業이란 人間과 家畜을 위하여 모든 食飼料를 生産하고 그밖의 産業을 위해서는 大部分의 原料와 補助材料를 提供하는 産業을 말한다. 狹義의 農業은 植物的 및 動物의 原料의 生産을 指向하는 人間活動이며 여기에 있어서는 土地의 規則的 耕作이 行해짐과 함께 또 土地利用이 育畜과 가장 密接한 關係를 맺는다. 그런데 農業生産이나 農業經營에는 土地, 勞動, 資本이 利用되는 것이지만 그 中에서도 土地가 가장 重要的 生産手段이 되어 이것이 農業이라고 하는 産業部門의 全體에 特殊한 性格을 附與한다. 그러므로 農業이란 土地經濟에 不外하다. 生産手段으로서의 土地는 不增加, 不運動, 不消耗라는 特質을 가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土地를 가장 重要的 生産手段으로 하는 農業은 工業, 手工業等과는 전혀 相異한 性格을 가지게 된

다.』라는 것이다.

「비고트진스키」(Willi Wygodzinski)는 『農業은 有機的 形成을 經濟的 目的에 가장 適合시키는 것을 그 任務로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勿論 完全한 意味의 創造는 있을 수 없고 工業과 마찬가지로 既存의 素材를 바꾸어 人間의 經濟的 諸目的에 곧 利用되게 하는 形態로 만드는 것에 不過하다. 다만 農業에 의하지 않고는 人間의 活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素材를 自己의 變形過程에 잡아넣는 것이 農業이며 이러한 農業에 있어서는 自然의 影響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決定的 威力를 가진다. 이것은 農業을 다른 諸部門으로부터 本質적으로 區分하는 點이다. 즉 農業은 植物性生産의 경우에는 徹頭徹尾 動物性生産의 경우에도 많은 點에 있어서 土地와 結付되어 있고 氣候狀態의 不變更은 勿論이고 土地의 地理的, 化學的, 物理的 諸性質의 變化도 比較的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結局 土地와 그 自然的 및 經濟的 諸特質은 農業者의 經濟行爲를 事實上 制限하게 되는 것이므로 勞動과 資本의 使用은 土地의 特質에 오직 順應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主張하고 있다.

다시 「다빈」(Eduard David)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農業生産과 工業生産과의 사이의 根本的 區別은 前者는 生物의 育成을 問題로 하는 것인데 대하여 後者は 죽어 있는 물건의 加工을 問題로 하는 것에 求할 수 있다. 工業에 있어서는 生産物을 產出하는데 必要로 하는바의 物質의 分離와 結合을 直接的 衝動에 의하여 人間의 意思가 遂行하는 것이지만 農業은 그러한 分離 結合의 行爲를 生物의 獨立的 活動에 맡기지 않으면 안된다. 工業的 財貨生産은 機械的 過程이요 農業生産은 有機的 過程이다. 農業財獲得의 中心點에 位置하는 有機的 過程은 農業의 特質을 決定한다. 有機的 過程이 消失되면 本來의 意味의 農業의 生産은 끝을 맺는다. 收穫勞動은 農業生産領域에서 工業生産領域으로 移向하는 過渡的 勞動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 「다빈」는 機械的 生産과 有機的 生産과의 사이에 存在하는 重要的 相違點을 아래와 같이 列舉하고 있다. 『①有機的 生産에 있어서는 勞動過程은 連續적으로 流動되지 아니하고 自然이 往往 이것을 中斷시킨다. ②勞動種類的 繼續的 交替. ③農業勞動의 移動의 性格. ④農業生産의 「템포」는 變更되지 않는다. ⑤勞動의 場所가 廣汎하다. ⑥農業生産過程 안에 人間이 實體적으로 沒入한다. ⑦生産의 上昇은 比較的 緩慢하고 限定的으로만 그것이 可能하다. ⑧土地收穫遞減의 法則이 作用한다.』

이밖에 「스칼와이트」(August Skalweit), 「에-레보」(Friedrich Aereboe), 「란크」(E. Lang), 「부링크만」(Th. Brinkmann), 「부렌타노」(Lujo Brentano), 「부헨벨가」(Adolf Buchenberger), 「테이라」(Henry C. Taylor), 「오부라이엔」(George Obrien) 등의 農業에 관한 所說을 檢討하고 또 「리아시첸코」, 「카웃스키」(K. Kautzky)의 農業理論을 吟味해 본다 하더라도 그 各其의 主張點은

相異한바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農業의 特殊性에 대해서는 모두 共通한 見解를 堅持하고 있다. 즉 그들의 共通된 農業勞動過程의 技術의 特質로서 첫째, 主要生産手段으로서의 土地利用에의 依存度가 높고, 土地가 規則的, 反覆的으로 利用된다는 點, 둘째, 有機的 生物學的 過程에 의하여 農業은 特徵지워지고 農業勞動은 生物學的 法則에 順應해야 한다는 點, 셋째, 人間이 그 行爲(勞動, 活動)에 의하여 人間과 自然과의 사이의 素材轉換을 媒介하고 規制하고 統制하는 程度가 自然에 대한 支配, 統制力이 比較的 低弱하다는 點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기야 이것만으로는 農業經濟學의 對象規定은 不充分하며 이 素材의 基礎 위에 價值關係를 展開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리아시첸코」, 「카웃쓰키」等은 이點에 대해서도 問題를 깊이 分析하고 있지마는.)

이와같은 特質을 가지고 있는 農業勞動過程은 먼저 直接的으로는 農業勞動의 生産性을 規定하는 條件이고 나아가서는 보다 具體的인 農業資本의 生産力 或은 農業資本主義的 生産關係의 素材의 基礎만이 아니라 自然史的 基礎를 形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問題의 理解를 위해서는 한層 이에 대한 깊은 考察을 必要로 할 것으로 생각된다. (次號에 繼續)

參 考 文 獻

1. K. Marx; Lohnarbeit und Kapital.
2. K. Diehl; Theoretische Nationalökonomie.
3. K. Marx; Das Kapital.
4. 碓正夫著;『農業經濟學原理』
5. 『코타綱領批判』日語版全集
6. 『ホイエルバツハ論』岩波文庫版
7. 『櫛田民藏全集』第一卷
8. D. Ricardo;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9. 河上肇著『マルクス經濟學の基礎理論』全集八卷
10. Goltz; Vorlesungen über Agrarwesen und Agrarpolitik.
11. Wygodzinski; Agrarwesen und Agrarpolitik. (東畑・山田 共譯)
12. E. David; Sozialismus und Landwirtschaft.
13. K. Kautzky; Die Agrarfrage. (向坂譯本)
14. 「리아시첸코」著;『農業經濟學』(直井譯本)上・下
15. A. Skalweit; Agrarpolitik.
16. A.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 碓正夫著;『小農經濟論』
18. K. Marx;『剩餘價值學說史』(大森譯本)